

보호차원 닫혔던 명승 등 다시 열리나

산방산·범섬·문섬·섬섬 공개 제한 기간 올해 말로 송악산 7월, 물밭·문석이오름 휴식년제 올해 말까지 재공고 없으면 내년부터 입산 등 출입 가능 '관심'

식생보호 일환으로 10년간 출입이 금지된 제주 명승과 천연기념물에 대한 공개 제한 기간이 올해 말 도래함에 따라 재개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서귀포지역 소재 산방산과 문섬, 섬섬, 범섬 등 4곳은 국가 지정 문화재의 훼손 방지를 위해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10년간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출입하면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과거 섬섬은 지난 2000년 탐방객이 버린 담뱃불로 화재가 발생했고, 산방산도 2004년 소각 부주의로 불이 나면서 희귀수목 등이 소실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해당 지역과 천연기념물에 대한 식생 보호 및 복구가 요구됨에 따라 서귀포 지역 산방산, 문섬, 섬섬, 범섬 등 4곳에 공개 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출입을 제한해 왔다.

문화재청은 올해 말 공개 제한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식생 복원 등의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기간 연장 여부를 공고할 계획이다. 공고 시기는 보통 기간 만료 2-3개월 전에 이뤄짐에 따라 9-11월쯤으로 예상된다. 만일 재공고가 이뤄지지 않아 공개 제한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의 입산 등 출입이 가능해지면서, 탐방객 등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천연보호구역 등지는 식생 보호 차원에서 부분 출입 제한이 이뤄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제주 지역에서는 올해 송악산 정상과 물밭·문석이·도너리 오름 등 4곳도 자연휴식년제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송악산 정상부는 오는 7월까지, 나머지 오름 3곳은 12월 말까지 자연휴식년제가 유지된다. 제주도는 모니터링을 통해 각 오름에 대한 자연휴식년제의 연장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오름 등은 식생 회복이 늦어짐에 따라 재연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한번 훼손된 자연은 다시 회복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면서 "올해 자연휴식년제 기간이 만료되는 오름 등에 대해서는 연말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탐방객 급증으로 오름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는 제주시 구좌읍 용논이오름에 대해 지난해 말부터 2023년 1월 말까지 자연휴식년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태윤기자

고초균 등 농업미생물 이용 퇴비 악취·가스 피해 저감

농업미생물을 활용한 부산물 퇴비 악취와 가스 피해 저감 실증실험 결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9-12월 4개월간 실험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농경지에 살포하는 부산물 퇴비는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과 시설하우스 농작물에서 가스 피해를 유발시킨다.

이에 따라 센터는 시중에 유통하는 부산물 퇴비 1종에 농업미생물인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등 4종을 퇴비 포대 속에 일정량을 주입했다.

그 결과 퇴비 1포대에 고초균 또는 광합성균 100㎖를 주입하면 5주 후부터 가스 발생량이 줄었고, 50㎖를 주입하면 10주 후부터 감소했다. 또한 효모균은 100㎖를 주입할 경우 10주 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농업미생물 처리를 하지 않은 대조구와 유산균은 감소량을 확인할 수 없었다.

제주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가에서 부산물 퇴비 살포 5-10주 전에 농업미생물을 포대 속에 주입하면 암모니아 가스를 감소시켜 악취와 가스 피해를 저감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폭설 뒤 비 날씨 11일 제주시 오라동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형 양성평등 정책 '더 제주처럼' 추진

성평등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 총 41개 사업에 133억원 투입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생활체육형 양성평등 정책인 '더 제주처럼'에 총 133억원을 투자해 여성안전과 건강 증진 분야 등 총 41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더 제주처럼' 양성평등 정책은 2019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소통과 포용으로 더 성평등한 제주 사회 실현'이라는 비전으로 >성평등한 사회 환경조성 >여성·가족의 삶의 질 제고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등

3대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도는 여성안전과 건강 증진 정책 분야에 99억원을 투자하고, 제주지역 여성 1인 가구 급증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여성 안심 3중세트 지원 사업과 택시 및 심야버스 안전서비스 사업 등에 9억원을 투자한다.

범죄예방 환경개선 디자인사업과 생활안전 사각지대 개선 CCTV 및 스마트 관제시스템 도입에도 86억원을 투입한다.

사회적 책임강화 분야에 8억원을 투자해 조손가정, 이혼위기 가족 등 위기에 처한 다양한 가족지원 및 수놓음 육아나눔터 조성 등 운영비를 지원

해 24시간 긴급 돌봄센터를 운영한다.

청년여성 쉼터 지원센터 운영, 여성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및 여성 성공통계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등 여성일자리를 확대를 통한 여성의 재정적 자립을 위해 여성일자리 활성화 분야에 13억원을 투자한다.

성평등문화 확산 사업 분야에는 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 5억원, 생활속 문화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성평등 공감 캠페인, 성평등 미디어 이상 등에 3억원을 투입한다.

이현숙 도 성평등정책관은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더 제주처럼'을 통해 올해 코로나19 등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성평등 문화 확산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코로나 시대 제주안심코드 설치해 주세요"

도민 대상 전방위적 홍보 일상·방역 상호공존 추구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전자출입명부 어플리케이션 '제주안심코드'의 전방위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불특정인기사를 기반으로 한 제주형 전자출입명부 어플리케이션 '제주안심코드'는 지난해 12월 21일 출시된 이후 3주 만에 가입자 10만명과 사업장 6000개소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제주안심코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방문 이력과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함으로써, 코로나19 집단감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다.

안심코드는 전 도민 및 입도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주안심코드 기반 방역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일상생활과 방역의 상호공존을 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는 도민과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사용을 위해 1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3주간 제주 안심코드 집중홍보 기간을 설정해 전방위적인 홍보에 나선 방침이다.

우선 도·행정시·읍면동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홍보 요원화를 추진하고, 도내 중점관리시설(12종)·일반관리시설(18종)을 대상으로 제주안심코드를 집중적으로 설치토록 한다.

또 제주 공·항만 특별업도절차와 연계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도내 8대 관광 클러스터와 특급호텔 등 주요 관광 명소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

제주안심코드가 설치된 시설을 방문하는 이용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앱스토어(iOS)에서 '제주안심코드'를 검색한 후 설치할 수 있다. 최초 가입 시 본인 확인을 거치면 QR코드를 찍는 행위만으로 간편하게 출입을 인증할 수 있다.

안심코드는 이용자의 방문이력과 개인정보가 불특정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암호화 관리되며 정보 유출이 없는 것도 큰 장점이다.

인증 정보들은 역학조사 기간을 고려해 4주간 보관 후 자동 파기된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서귀포시 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한다

188억원 투입 8개 지구 정비

서귀포시 >표하천지구가 포함된다.

또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성산읍 오조·시흥과 남원읍 남원리 등 2개 지구에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해 실시설계와 함께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 절차를 추진한다. 서귀포시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주민설 명회 개최·수해자 및 피해자 방문 설명,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실시설계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성산읍 오조·시흥지구에는 모두 154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돼 배수로 개량과 함께 저류지·배수펌프 용량 확충 등 사업이 추진된다. 남원읍 남원리지구에는 95억원이 투입, 저류지·배수로 정비 등 공사가 진행된다.

현영총기자 yjhyeon@ihalla.com

서귀포 지역 내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서귀포시는 올해 모두 188억원을 투입, 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주택·도로·농경지 침수피해 우려가 높은 재해취약지구 8곳을 개선·정비한다고 11일 밝혔다. 관련 예산도 지난해에 비해 42억원이 늘었다.

서귀포시는 이같은 계획에 따라 성읍·수산 간 지방도 일대 서성로 재해 위험개선지구를 포함한 6개 지구에 사업비 168억원을 투입, 배수시설 정비·저류지 등 재해저감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서성로지구 외에 >난산1지구 >수망3지구 >산남천지구 >

읍·면 실외 반려견 중성화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읍·면지역에서 양육되는 반려견(마당개) 225마리를 대상으로 중성화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고령자(만 65세 이상)다.

마당 등 실외에서 키우는 암컷 반려견(흔종견) 중성화를 희망하는 신청대상자는 오는 29일까지 거주지 읍·면 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우선순위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 가구는 동물등록이 돼 있는 경우에 한해 우선순위 신청불량 외 잔여불량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오은지기자

2021학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영재관 2021학년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탐라하우스 입주학생 선발·모집 공고

「탐라영재관, 탐라하우스」의 2021학년도 입주학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1년 1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탐라영재관	탐라하우스
1. 위 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7길 10-10 2. 선발인원: 236명 (남학생 84명, 여학생 152명)	1. 위 치: 동대문구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 36길 17 옹암빌 전농1차 · 동작구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부순원로 259가길 19 2. 선발인원: 15명 (남학생 7명, 여학생 8명)

(공 통)
○ 입주자격
가. 서울특별시 인건지역 및 경기도(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소재 대학의 신입생이나 재학생이며, 영재관 입주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학생이나 보호자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등록기준지 또는 출생지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등록한 등록기준지(2008. 1. 1. 전에 최초로 등록한 사람인 경우에는 종전의 "호적법"(법률 제84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본적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민이다. 다만,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도권인 자는 제외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대학(「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출입자와 동등한 학력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의 신입생이나 재학생
※ 신입생의 경우 지원대학 합격결과 미발표 시 대학지원서류로 지원가능
※ 원격대학, 대학원생 제외
○ 선발기준
- 학업성적(30%) + 생활정도(70%) + 가점(5. 3점) - 감점(5점)
○ 관련법령: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입주학생 자격제한
가. 퇴학, 정학 및 휴학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다만, 휴학자 중 2021학년도 1학기 등록할 자는 제외
나. 금치상 위법 및 범죄에 의하여 퇴학한 자
다. 휴학 등 특별한 사유없이 매월 2월 이내에 퇴거했던 자
○ 입주학생 모집·선발예정 일정
가. 접수기간: '21. 01. 08. ~ '21. 01. 18. 00:00까지
나.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https://genius.jpdc.co.kr)
※ 방문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구비서류는 정확한 자료를 이미지(JPG, PNG, GIF) 파일로 변환(스캔)후 첨부
○ 기숙사비 및 입주기간

我羅憲 법무사 사무소 고택영 법무사 개업인사

많은도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재일 한국인, 한국 거주 일본인, 결혼 이주민 등을 위해서도 최신의 법률 봉사를 다하겠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서 27년간 근무하다 작년 명예퇴직을 하여 我羅憲 법무사 사무소(법무사 고택영 정준원)를 개업하여 업무를 시작합니다.

민사소송, 가사소송, 부당상환기, 상환등기, 경매, 가족관계등록 업무의 성년후견인, 유언대용인탁 등 새로운 법률시장에서도 선도적인 법무사로 일하겠습니다.

2021. 1. 11.
법무사 고택영 올림
H.P. 010-2775-9131

업무개시일 : 2021년 1월 11일(월)
제주시 중앙로 312 형제빌딩 4층 501호 (법원 건너편 버스정류장 앞)

학 력	이 력
-안덕초 46회, 안덕중 29회 졸업 -오현고 33회 졸업 -제주대학교 법학과 85년도 입학 -2020. 12. 제주대학교 법학대학원 재학중	-1993.7. 제주지방법원 입사(20기) -2010. 일본 법무성 연수 -2013-2014 일본 히토쓰바시 대학 장기 연수 -2018 제주지방법원 법원사무관 승진 -2020. 12. 31 제주지방법원 명예 퇴직 (법원 서기관)

T. (064)755-7776, F.(064)753-7776
E. goty2264@naver.com

국민무로 내선공사실무및전기기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취 득 과 정

접수기간
2021년 01월 05일 ~ 2021년 01월 31일
(정원22명 초과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교육기간
2021년 02월 01일 ~ 2021년 07년 30일
(6개월, 125일, 870시간)

교육내용
09:00 ~ 17:00
(7교시, 점심시간 12:00 ~ 13:00)

(숙) 합 격 (총 23명 응시)
"2020 4회 전기기사" 87% 최종합격
양*호, 나*철, 고*민, 반*규, 이*진, 김*호, 송*원, 김*철, 박*욱, 김*수, 김*진, 김*철, 문*기, 문*국, 정*우, 김*철, 문*인, 임*봉, 현*림, 김*희

(주)제주직업전문학교

제주시 서사로 81 (삼도동) 중앙여중 정류장, 진영마트 맞은편
064)725-5545 http://www.jejuvs.co.kr